

브라가의 소식들

Beracah Valley News



특별전도팀 제55차 국내순회전도 보고

제55차 국내순회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주신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 기도회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전도팀 구성

- 총지휘:** 김승석 목사(충만교회, 선교회장)
- 메시지위원:** 전홍열 목사(고창오산교회 원로목사, 갈보리회 총무, 행복한요양원 원목), 채규만 목사(비전성실교회 원로목사), 이성근 목사(선교사, 성경교회)
- 협력목사:** 김용식 목사
- 간사:** 김현철 목사(충만교회, 총무), 김정은 전도사(행정), 윤정화 전도사(회계, 디렉터), 주정림(서기), 류준복(중국어), 원종석(기자재, 엔지니어), 김혁(차량), 이성하(영어, 엔지니어 부 간사), 윤여중(태권도)
- 단원:** 박지연, 이한국, 백승범(부 차량간사), 이진수, 조민수, 이상혁, 진유승, 권지현(엔지니어 보조), 임희훈, 나운용, 정혜영, 윤여진, 백정민, 황무현, 이승연, 강현우, 양현웅, 김우영
- 촬영:** 강기용 권찰

8월 제55차 국내순회전도 일정표

1일	① 부산 천양이념치는교회 (이청천 목사) ② 부산역 광장	8일	① 강릉 월화거리 (중앙시장)
2일	① 부산 송상현 광장 ② 부산 송상현 광장	9일	① 동해 추암해변 ② 정동진 모래시계탑공원
3일	① 다대포 해수욕장 ② 다대포 해변공원	10일	① 가평 생명의말씀교회 (신인숙 목사)
4일	① 부산 송상현 광장 ② 부산 신세계백화점 앞	11일	① 동해 추암해변 ② 주문진 수산시장 입구
5일	① 대구 동성로 야외무대 ② 대구 수성못유원지	12일	① 고성 임마누엘기도원 (문종복 목사) ②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6일	①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대나무숲길 ②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광장	13일	① 안산 방아머리해수욕장 ② 안산 방아머리해수욕장

후원회원 및 단원모집 안내

1. 후원회원

물질과 기도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교회- 후원금 송금은 월별 또는 연간으로 선택해서 무통장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017-12-077384

국민은행: 825-21-0082-437 (예금주/김승석)

우리은행: 146-08-237723

2. 기도회원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로 동참하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는 홈페이지나 매주 보내드리는 카톡과 별도로 보내드리는 보고서의 기도제목을 담지하시고 매일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3. 단원모집

국내외의 각종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교인 이상 / 선교회 홈페이지 참고)



갈보리선교회
www.calvarymission.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7, 201호 (더프라우) 충만교회 내
Tel) 031-713-0807 간사) 010-5732-9009



출리마운틴 - Holy mountain



새로운동역자

55차 국내 순회선교를 다녀와서

채규만 목사 (비전성실교회 원로목사)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저도 전도를 한다 하면서 많은 전도 훈련과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번 전도여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감동과 감격, 충격과 놀라움이었습니다.

특히 갈보리선교회 단장 목사님은 물론 단원들의 전도 현장에서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찬양과 공연(드라마, 워십, 부채춤, 태권도 등)으로 8월의 이글거리는 불별 아래서 흘린 땀과 수고, 눈물과 간절함은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단원들의 섬김과 나눔,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면류관으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살전 2:19). 매년 1월과 8월에 두 주간의 휴가와 하루 이틀의 시간을 쪼개어 달려와 함께하며, 또한 매주일과 공휴일에 전도 현장에 함께하는 단원들을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무반응으로 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전할 뿐이고 보고 듣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傳道)는 전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전도로 나와 우리를 통해서 오늘 구원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지와 전도용품들은 물론 나의 신앙과 삶이 전도지(전도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이 돌아와 보고한 역사와 증거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눅 10:17-20). 저도 힘이 닿는 대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와 기대, 감사와 영광, 능력과 역사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문자 힘내라 힘!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

김상기 장로

전도집회를 하는 동안 오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선교단체에 도움의 손길이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이글이글 타는 불 더위

허홍재 목사

그늘에 앉아 동서남북 선풍기 4대 켜놓고도 힘든데, 이글이글 타는 불 더위에 사방팔방 순회전도! 전방위로 전도 활동!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며 박수를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귀한 상급도 준비를!!

기도하겠습니다

김중남 목사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롬 파이팅!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김정숙 전도사

더운데 수고들 많으셨고요~~ 조심히 올라가셔서 재충전하시고 강원도와 경기도 일정도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씨앗이 또다른 씨앗이 되어

박신봉 목사

연일 무더위 속에 수고가 많습니다. 작은 씨앗이 또 다른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가 되어 주님 영광받으시기를 기도 올립니다. 살롬!

기도로 응원합니다

정이남 목사

주님 은혜 중에 많은 열매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기도로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

김홍길 장로

단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강신이 장로

이 무더위와 코로나에도 힘차게 선교활동을 이어나가는 갈보리선교회와 김승석 목사님의 땀과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설교하시는 김승석 목사님, 아직도 모습이 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감동과 전율을 느낍니다

박천식 목사

전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과 전율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의 손, 성령님의 사랑의 터치를 기대하면서 추수 때의 기쁨을 미리 보게 됩니다. 살롬!

첫째 주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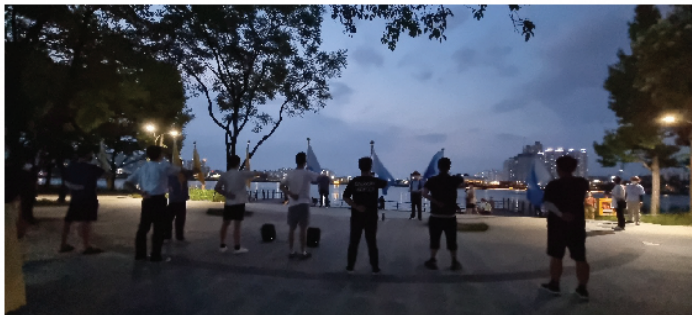
경상남도 지역

2021년 8월 1일(주)~6(금)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

정혜영 단원

아침까지도 비가 오고 태풍주의보와 해수욕 금지라는 재난문자가 여러 번 울렸지만 우리는 예정대로 전도하기로 했다. 오전 기도회를 마치려는데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창문 너머로 햇볕이 내리쬐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추암해수욕장으로 달려갔다. 해수욕이 금지된 상황인지라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해변 경치를 보기 위해 모인 관광객들이 꽤 많았다. 중간에 한번 비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선선한 날씨 가운데 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정동진 시계탑 근처에서 집회를 할 때는 끝내 장소 협조가 안되었지만 근처 식당 주인의 협조로 공간을 빌려 집회를 하게 되었다. 어디를 가든 돕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잠시라도 스쳐 지나가며 우리의 전도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동역자들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요, 함께하심을 느끼며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 더군다나 첫째 주 간 경상도에서 더위로 고생한 우리에게 둘째 주 강원도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하나님의 선물 같았다.



재앙의 시대인 이때

윤여중 단원

오늘도 햇빛이 강해서 전도하기 전부터 긴장이 됐다. 오후 1시 정도 태화강국가정원에 있는 대나무 숲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피약별이지만 산책하고 운동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만난 사람들 대부분에게 복음과 말씀을 상세하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에 비상이 걸린 시점에서 예상과 다르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게 해주시고 고생한다며 음료수를 사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재앙의 시대인 이때가 더 많은 사람을 예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때임을 보게 된다. 개인적으로 전도하든지 단체로 전도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보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장기용 권찰

이번 전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 국가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4일에 오픈이라서 순회전도 참여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연기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그 사업이 10월 중순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뉴스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당장 그동안 남겨두었던 5일간의 휴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남은 문제는 업무 대체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하기 싫어하는 업무라서 대체자를 찾기 쉽지 않았는데 선뜻 돕겠다고 나선 신입사원이 있어 감사하게도 3주 전부터 인수인계를 할 수 있었다. 5일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여러사람들이 문제 삼아 이런저런 방해들도 있었지만 더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하며 잘 넘길 수가 있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다. 나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2종 면허에서 1종으로 취득했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기록을 잘 남길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5박 6일 경상도에서의 일정은 연이은 폭염에 오후 2-3시에도 그늘막 없는 땀별에서 다들 고생한 한 주였다. 반겨주는 이도 없는 길거리에서 땀 흘리며 얼굴이 시뻘개져 전도하는 것을 보니 ‘한 사람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많았고 보람차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다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꼭 함께하고 싶다.



둘째주 집회

강원도 지역

2021년 8월 8일(주)~13(금)

큰 은혜와 감동

윤여진 단원

아침 일찍 출발하여 강릉에서 가평까지 2시간 이상을 이동하여 집회장소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나 우리를 기쁘게 반기기보다는 무언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다녀갔다는 것이었다. 예배 중에 다시 들이닥칠 것을 염려해서 나름의 대책을 세우시느라 걱정이 가득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예정대로 집회는 시작되었고 여자 목사님과 성도들의 뜨거운 찬송과 통성기도 가운데 나도 이분들의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위해, 집회가 무사히 잘 마치기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던 단원들의 위십과 찬양, 목사님들의 설교 덕분인지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음에도 후끈 달아올라 땀을 흘리며 집회를 하게 되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우려와는 달리 누구도 다시 오지 않았고 아무 문제 없이 모두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며 집회를 마칠 수 있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적절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 기도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

양현웅 단원

오늘은 매우 맑은 날씨를 주셔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와 전땀, 마스크, 성경책을 잘 받아주셨다. 몇몇 분들은 짜증과 화를 내며 거절하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을 볼 때, 우선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감사했다. 한 자리에서 끝까지 집회를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다리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박수와 환호소리, 가게 안에서 장사하는 중에 몸을 빼고 열심히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다. 힐끔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의도치 않게 귀에 들려지고 보여졌던 그 사람들까지도 너무 귀하고 감사했다. 은혜롭게 집회를 마친 후 다음 장소인 주문진수산시장으로 향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인원을 줄여서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2인 전도를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조용히 지켜보던 분께서 현금을 하시며 후원해주셨다. 환영받지 못하고 고생하며 외로운 싸움을 한다 생각했는데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더욱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다. 누구의 방해와 소란 없이 집회가 끝나고 난 후, 뒤에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의 섬김으로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 모든 것이 너무도 감사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감사한 날이었다.

이 복음은 영생의 소식

이승연 단원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산책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다. 가만히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사래를 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도 다수였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외쳤다. 이 한 마디가 어떻게 보면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이다. 이 한 문장을 듣는 불신자에게는 이제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간다는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영생의 소식이자 영원한 죽음의 소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하는 나는 절대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열심을 다할 수 있었고 기뻐고 감사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류춘복 단원

이번 순회전도의 마지막 날이다. 동역자이신 김용식 목사님께서 치료받고 계시는 중에도 찾아와주셨고 매주 목요일에 양평역에서 색소폰을 연주하시며 전도하신다는 김조 목사님 내외분이 찾아오셔서 채규만 목사님과 함께 특별한 공연과 함께 메시지를 선포해주셨다. 김조 목사님의 색소폰 팀은 앞으로 우리의 야외전도에 자주 동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집회를 위해 기자재를 설치하는 동안 관리하시는 분의 반대가 잠깐 있었지만 잠시 후에 이 분은 우리의 전도집회를 가장 가까이서 제대로 참석하신 분이 되었다. 마지막에는 감사인사까지 하고 가셨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놀라운 뿐이었다. 어떤 분은 자신도 성도라면서 수고하신다며 음료수를 잔뜩 사다주고 가셨고, 어떤 흑인 가족은 집회 내내 지켜보면서 영어 찬양을 따라부르기도 했다. 물론 해수욕하는 곳까지 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잠시 떠나있던 사람, 복음을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 우리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임한 이 전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역사해주셨을 것이라 믿는다.



55차 순회전도를 마치며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

박지연 단원

전국에 거리두기 3, 4단계 조치로 4인 이상 집합금지과 여러 방해들로 인하여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 앞에서 담대하게 준비하고 진행해 나갔다. 목사님들의 수고로운 사전답사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진행되어가는 집회 일정들이 예사롭지 않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많이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거의 야외집회로 축소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동시에 돌씩 짝을 지어 전도를 하며 팬투팬으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직접 전파하는 좋은 기회였다.

지금 이 분명히 말세지말이고 곧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하심이 있을텐데 그때는 전도도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도하라고 주신 기회가 어찌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방해가 있고 싫어함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여도 곳곳이 달려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뜻과 계획

진유송 단원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순회전도 일정이었다. 특히나 교회를 비롯해 실내집회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과 신고, 방해, 그뿐 아니라 찌는 듯한 무더위가 큰 몫을 했다. 사실 더위는 참을 수 있었지만 어딜 가나 야외집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 집회 장소의 관계자는 물론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나서서 집회를 방해했던 모습들이 나에게 큰 우려와 걱정을 가지게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약한 나의 믿음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사단의 방해와 역사임을 깨닫고 회개의 순간으로 만들기도 했다. 모든 집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방해조차 물리쳐주시는 하나님을 더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도 집회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지나가던 모든 사람, 교회를 다녔는지, 다니다 떠났는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과 계획은 내가 이 전도를 준비하고 참여케 하신 목적과 이유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실내에서 편하게 집회하던 갈보리선교회가 바울과 같이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참된 의미!! 그것이 우리를 야외에 까지 내보내셔서 전도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 더 확실히 깨닫게 됨을 감사하게 되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조민수 단원

이번 순회전도는 내게 있어 참 도전이 되고 긴장이 되는 시간이었다. 여러 중직자 분들이 임신, 출산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내가 메꿔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니 오히려 실수가 생기고 나의 부족함을 더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게 만드셨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니 모든 무거웠던 짐이 풀어지고 그저 전도에 집중하며 2주간의 일정을 보낼 수 있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4단계 거리두기 방역을 하고 있었고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집회 장소의 관리자들이 나와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심지어 경찰이 오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단원들은 부지런히 전도지, 전빵, 마스크를 나누어주며 예수님을 전했고 목사님들께서도 더 큰 목소리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셨다.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결국 전도를 했다.

화려한 조명, 음향, 공연은 없었으나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더 심한 것이 온다고 해도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것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



55차 순회전도를 마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김초희 간사
(뮤지컬)

국내순회전도가 벌써 55번째다.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갈보리선교회를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출산으로 인해 이번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으며 감사드렸고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내 빈자리를 열심히 메워주는 동역자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과 함께 얼른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 하였다. 내가 없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더 열심히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가다듬어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전도에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도를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않는 자들에게만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도 보내 그들이 찢림을 받고 회개하여 우리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정반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소수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고마웠고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많지 않지만, 영혼과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곳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희망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갈보리선교회와 끝까지 함께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다음에는 어디로 보내실지 궁금한데, 어디로 보내시던지 구실을 다하는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나를 위로하시고 새힘을 주셨다

강현우 단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그것도 약식 프로그램과 2인 전도를 했다. 전도지를 내밀자 나에게 성질내는 사람, 욕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힘을 주셨고 내 마음속에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 전할 수가 있었다. 나는 평소에 개인전도를 잘 못했던 사람이었으나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 전도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세심히 도와주시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전도하는 것이 한결음 더 나아가게 된 것 같아 감사했다.



거룩하고 귀한 일에 사용하심

이진수 단원

이번 순회전도에 4박 5일간 동참하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가 합당치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일에 세워주시고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전도하는 모습조차 꺼리고 사회의 악, 코로나 확진자 수를 늘리는 교회라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크리스천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며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며 프로그램으로, 말씀으로 전도하는 단원들과 목사님들을 보며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부족한 나를 이 국내 순회전도에 참여케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임을 깨닫는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되고 말 것이다.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더 잘 훈련되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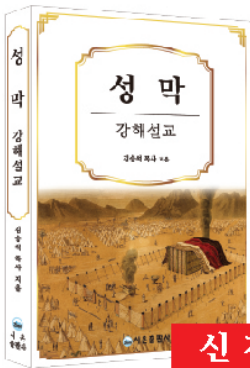
김현철 목사 (총무)

코로나로 인해 3, 4단계 방역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실제로 순회전도 기간 중 몇몇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기도한 그대로 우리는 2주간 쉬지 않고 매일 전도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주님의 뜻하심과 섭리 가운데 그저 순종만 하니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며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비록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항상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 보나 더한 위험이 다가와도 복음의 열정은 꺾일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고로 우리 갈보리선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다시 초대교회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함을 깨닫게 되었다. 날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지금처럼 앞으로도 복음을 들고 외치는 자가 될 것이다.

강해서 및 전기안내

성막 강해설교



신간

전1권 권당 25,000원
김승석 목사 지음

1. 성막은 성경 전체를 그림을 보고 이해하듯이 매우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그 진리들의 상호 연관성과 연결점**을 알게 해줍니다. 각 편마다 성경본문을 기록한 후 해석과 메시지가 서술되고 있고, 성막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그 해석과 가르침을 정확히 알게** 해주는 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대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혼자서 성막을 공부하려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해하기 쉽고 큰 은혜를 받게 하며, 알기 쉽고 간결하게 서술** 하고 있습니다.
2. 본문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 해석을 세심하게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 누구시며 진리가 무엇인가(지혜)
 2.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하게 함(책망)
 3.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함(바르게 함)
 4. 올바른 신앙생활, 사명수행, 복회, 전도방법(의로 교육하는 말씀)

사도행전 강해설교



전6권 각권 22,000원
김승석 목사 지음

- ◆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상세히** 알게해줍니다.
 - ◆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 ◆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록해지는가?
 - ◆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
 - ◆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는가?**
 - ◆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
 - ◆ **하나님의 종과 거짓 종이 어떻게 다른가?**
 - ◆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 이런 질문에 대해 분명하고도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설교



전3권 각권 18,000원
김승석 목사 지음

- ◆ 요한계시록은 66권 성경 중 가장 난해한 성경으로서 매우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대해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충분히 담았습니다.**
- ◆ **전체 144편으로, 목차는 계시록의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미리 상세히 볼 수 있게** 했고, 각 편마다 큰 제목과 중간제목과 소제목을 명기하여 **각 편이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서 살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김두영 목사 전기



전1권 권당 20,000원
김남식 목사 지음

김두영 목사의 전기, <김두영, 소록도의 목자>(김남식 목사 지음)가 출판되었습니다. 일제 때 일확천에서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30분 동안 설명하여 신사참배를 중단케 하고, 6.25동란 때 3천 명의 기독교청년들의 의용군을 결성하여 인천상륙작전 때 카류사부대로 활약케 하고, 소록도국립나명원에서 32년 간 전인구원의 복회를 하시며 7개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등,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사역하신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들이 독자로 하여금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합니다.

구입안내

- 김정은 간사: 010-5732-9009 / 010-7659-9997
- 송금계좌: 373912-474-04107 (하나은행 / 류춘복)

사역소개 Ministries of Calvary

특별전도팀 사역소개

국내사역

- | | |
|---------------|-------------|
| 군부대공연전도집회 | 교회특별전도집회 |
| 특수기관공연전도 집회 | 아외광장 공연전도집회 |
| 중,고,대학교공연전도집회 | 국내순회공연전도집회 |
| 이주민대상 공연전도집회 | |

해외사역

- 해외순회공연 전도사역
- 선교사지원사역

교육문화사역

- 수요정기모임
- 제자훈련반
- 특별훈련

유치장, 갑호소 전도팀 사역